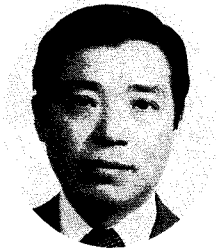


'90년대의 환경행정시책방향



김형철
(환경처 기획관리실장)

본 내용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특별 강연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 편집자 주 -

1. 90년대의 意義

國際的·國內的으로 복잡했던 80年代를 마무리하고 90年代를 맞이했다.

政治, 經濟的으로 90年代는 2천년대를 준비하는 時期, 실질적인 선진국으로의 진입단계로 생각한다.

한편 環境行政側面에서는 危機와 惡化의 解消가 交叉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危機側面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汚染發生始點이 60年代初의 産業化와 70年代의 重化學工業推進의 本格化에서부터 30~40년이 지나는 時期가 되고, 그동안 環境問題에 대한 根本的對策을 講究하지 못한 결과 重大한 環境事故가 90年代에 발생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를 갖게하기 때문이다.

美國이나 日本의 예로 보건대, 대체로 중화학공업에 따르는 산업 폐기물이나 汚染物質에 의한 사고가 40年餘를 지나면서 나타났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環境惡化의 解消側面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環境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國民一般의 環境문제에 대한 意識이 高揚되었고, 企業體의 公害防止에 관한 價値觀도 刮目할 정도로 向上되었으며 政府의 意志도 確固해졌다.

勞使問題보다 더 環境問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라든지 公害問題를 소홀히 함으로써 指彈의 대상이 되는것을 最大의 禁阻로 여기는 企業의 姿勢變化라든지 公害防止投資弘報를 製品弘報 못지않게 신경쓰는 모습, 그리고 環境處의 昇格등은 80年代初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環境危機를 극복하고 環境악화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점이 바로 90년대를 맞이하는 환경인 우

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90년대가 갖는 環境上의 意義도 여기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2. 90년대의 環境行政 推進與件

全世界는 90년대를 맞이하면서 국제정치, 국제경제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점치고 있다. 80년대말의 東歐圈變化가 예고하듯이 思想과 理念의 대립은 퇴색하면서 그에 대한 反動이 새로운 帝國主義的 모습으로 經濟·軍事面에서 침예한 對立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隱태하고 있으며,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보다 뚜렷하게 豫告하고 있다.

國內的으로도 地自制實施와 연계된 政治構圖의 變化가 豫告되고 있으며 地域間 均衡개발과 通商多變化에 따라 이른바 “西海岸時代”가 말해주듯이 經濟構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期待된다.

環境問題에 있어서도 커다란 變化與件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地球村으로 눈을 돌려본다

면 '89년 타임誌가 "危機에 處한 地球"를 올해('89年)의 人物로 선정 한 바 있듯이 地球環境의 위기가 全人類의 共同關心事로 등장하였다.

72年 스톡홀름人間環境會議이 후 환경문제에 관한 경중을 계속 올렸 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은 개선 되기는 커녕 악화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으며, 새로이 오존層의 破壞, 산성비, 氣溫上昇과 같은 전지구적 인 환경문제가 人類의 生存을 위협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유엔연설에서 美蘇가 共同으로 2次大戰이후 발견한 敵은 바로 지구환경의 오염 이고, 軍備縮小와 지구환경위협에 대한 대책이 없는한 국제경제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說破하였는가 하면, 부시美大統領은 90년에 世界環境頂上會議을 제안하였고 日本은 세계에 貢獻하는 日本을 標榜하면서 環境問題解決에의 奇與를 다짐 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英國도 오존층 破壞物質인 CFC를 早束히 使用禁止 하 겠다고 自請하고 나섰는가 하면, 昨年 7月 파리에서 개최된 G-7會議에서도 環境問題를 主要議題로 하였고, 各國 名士의 모임에서는 環境問題에 대한 識見있는 對話의 相對를 갖지 못할 형편이 되고 있다.

國內으로는 어떠한가? 지난해 環境의 날에는 大統領께서 環境保全의 중요성에 관한 談話를 발표한 바 있으며, 물문제해결을 6共和國 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로 指目하고 있으며, 民主化의 열기만큼 이나 環境問題에 대한 慾求가 분출 하고 있다.

環境問題에 대한 關心과 慾求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高潮되어 있 으면서도 우리의 環境實相은 적잖 게 惡化된 狀態에 있다. 世界保健機構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環境관리인. 1990. 2

北京, 天津, 멕시코市 다음으로 汚染이 심한 國際都市이며, 昨年에는 漢江下流의 가양에서 시안이 檢出 된바 있다.

下水處理場의 大幅擴充에도 불구하고 上水源은 汚染의 威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都市大氣汚染은 淸淨燃料의 供給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별로 없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대책이 그 규모면에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는 자체가 無理이기는 하지만 결코 總力을 集注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서있음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3. 解決해야할 課題와 다가오는 難題

지금 우리는 어떠한 問題를 안고 있으며 90年代에 어떠한 難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가. 解決해야할 課題들

(1) 上水源의 汚染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上水源汚染은 우리가 반드시 解決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 하겠다. 全國적으로는 약 6백여개소의 대소상수원(간이 급수원 除外)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댐과 중요하천에 46%의 上水源이 있고, 이들의 汚染은 飲用水의 飲用可能與否와 직결되고 있다. 淨水 후에 管網이나 물탱크의 부실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한없이 擴大되겠지만 環境面에서 上水源汚染은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그 原因을 찾아보면 家庭下水·工場廢水·畜産汚水등 다양하다.

특히 八堂·大清과 같은 廣域上水源은 周邊景觀이 秀麗해서 위락 시설이나 숙박시설등이 많이 들어 서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이 가중되고, 水溫이 養殖漁業에 적당한 湖沼는 가두리 양식장이 繁昌해서 汚

染이 加速化하고 있다.

(2) 河川의 汚染

全國의 거의 모든 河川은 汚染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시냇가를 찾기 어렵다.

都市貫流河川은 河川에 流入하는 生活下水와 쓰레기, 廢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하고, 숲이나 山勢가 아름다운 곳을 흐르는 하천은 觀光客·慰樂客이 버리는 각종 오물로 인하여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형편이다.

(3) 都市大氣의 惡化

人口가 密集한 都市치고 맑은 공기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全國家口の 80%가 愛用하는 煉炭에서 나오는 亞黃酸가스와 먼지, 일산화탄소 그리고 暖房用 병크C油에서 發生하는 汚染物質, 每4年마다 倍로 늘어나는 自動車の 홍수, 특히 버스·大型트럭등 디젤엔진의 煤煙이 都市大氣汚染의 主要因이다.

(4) 넘치는 쓰레기

우리나라는 1人當 하루에 約 2kg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다. 日本의 1.3kg이나 美國의 0.8kg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다.

그러면서도 國土가 좁아서 埋立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이 限死코 反對하기 때문에 埋立地를 造成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埋立量을 減縮하기 위해서는 燒却方式을 확대해야 하는데 燒却施設도 태부족할 뿐 아니라 分離收去體系도 定着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쓰레기 處理는 根本的對策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5) 有害産業廢棄物 管理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45천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약 2천톤은 특정유해

산업폐기물이다.

그동안 일반산업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함께 대부분 매립하는 편법을 썼고 특정유해산업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처리업자가 처리하여왔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처리가 비일비재했고 처리비용의 고가로 인해서 외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유해산업폐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은 본격화 되었지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유해산업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은 아직도 많은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지 크게 염려된다.

高度産業國家의 前轍을 밟지 않도록 늦기전에 지금까지의 처리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 발생하는 廢棄物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나. 다가오는 難題들

위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잘 알려진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그 이외에도 騒音, 有毒物, 海洋과 土壤의 汚染 등 解決해야할 課題가 많다. 이들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難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大氣중의 重金屬과 微量汚染物質

生活樣式이 多樣化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전혀 豫想치 않았던 汚染物質이 主要環境問題로 등장하고 있다.

에컨대 납, 카드뮴, 수은과 같은 물질이 大氣中에 增加하고 있는데 납은 有鉛揮發油自動車와 産業施設에서, 카드뮴은 주로 輸入하는 燃料에서, 수은은 産業體에서 排出된

다. 有鉛揮發油自動車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겠으나 地域에 따라서는 크게 關心을 기울여야 할 課題가 되고 있다.

이밖에 PCB, PCP와 같은 물질에 의한 人體被害, 放射能이나 라돈 그리고 石棉公害가 벌써 우리는 앞에 크게 부각된 環境상의 難題이다.

(2) 酸性비

北歐와 英國·獨逸, 그리고 캐나다와 美國間의 酸性비 被害로 인한 紛糾는 해묵은 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難題가 되기에 充分하다. 그것은 地理的條件이 中國大陸의 氣流圈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中國의 工業化로 인한 汚染物質의 移動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中國은 自國產 高硫黃燃料을 아무 淨化措置없이 使用하기 때문에 그 被害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적잖은 酸性비가 測定되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深化될 可能性은 充分하다고 본다.

(3) 河川의 量金屬汚染

아직은 뚜렷한 징후가 없으나 昨年에 한강하류에서 重金屬이 檢出되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將來의 河川重金屬汚染을 豫告하는 것 같아서 不安한 感을 떨치기 어렵다.

萬若 이것이 뚜렷해진다면 모든 淨水施設에는 重金屬處理施設을 설치해야 할 事態가 된다. 重金屬汚染源에 대한 徹底한 封鎖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時點에 다다른 느낌이다.

(4) 有毒物管理

生活水準의 向上과 産業의 高度化와 더불어 平素 들어보지도 못한 化學物質들이 우리주변에 범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合成化學物質이

1萬여종 流通되고 있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는데 日本은 3萬여종, 美國은 6萬여종이 된다고 하며 국제기구에서는 매년 300~500여종의 新合成化學物質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合成化學物質은 더욱 增加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이들중에는 상당한 유독물질도 포함될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지금부터 과학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90年代의 環境행정 施策방향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環境上의 問題를 안고 있다.

雄飛하는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90년대에는 이러한 環境문제를 최소화하는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먼저 90년대에 펼쳐야 할 環境政策의 方向과 그러한 政策이 效率의으로 推進될 수 있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해 보고 끝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몇가지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環境政策의 方向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의 環境여건은 오염요인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으며 오염현상도 더욱 광역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토라는 좁은 環境에서 산업구조는 더욱 고도화되고 토지이용은 더욱 增大될 뿐 아니라 에너지 使用量이나 消費生活規模는 더욱 增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구조는 적어도 每年 7~8%의 成長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每年 發生하는 勞動力조차도 吸收할 수 없기 때문에 現在의 成長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立

場이다.

따라서 環境保全은 成長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生産性과 附加價値를 높이는 環境政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環境政策의 方向을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을 擴大適用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轉換해야 한다.

從來에는 環境保全은 곧 經濟開發을 억제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해온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無公害技術을 開發하고 이를 生産活動에 適用하도록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經濟發展이 調和를 이룩하도록 하는데에 主眼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은 現在로서는 限界가 있으므로 그것이 全部일수는 없으나 적어도 施策의 方向은 그래야만 할 것이며 政府는 이러한 視角에서 企業과 研究機關을 支援해야 한다.

이와 함께 政府는 分散되어 있는 環境業務가 有機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綜合調整機能을 強化하는 한편, 現在의 汚染을 最少化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環境基礎設施을 擴充하기 위한 投資를 擴大하고 汚染監視活動도 더욱 活性化해야 한다.

그런데 環境問題는 政府의 노력만으로 解決할 수는 절대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企業體와 國民도 그에 相應하는 努力을 해야 한다.

企業은 環境投資가 生産비의 당한 일부라는 企業倫理를 定立하고, 스스로의 汚染을 스스로 除去하는 데에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며, 國民들도 日常生活에서 消費節約으로 汚染을 最少化하는 한편, 汚染監視의 主體라는 意識으로 環境의 과수군의 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三位一體的인 協力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環境은 快

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90년대에는 이러한 前堤아래에서 環境施策上 力點을 두어야 할 몇가지 施策을 提示하고자 한다.

나. 力點施策

지금까지 추진해 온 具體的인 施策에 관하여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새로이 力點을 두어야 할 事項만을 간추리고자 한다.

(1) 地球次元의 環境保全協力

오존층의 파괴,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기온상승문제와 같은 것은 汎世界的인 관심과 協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地球村의 一員인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각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國際社會에서 고립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간에는 많은 利解가 얽혀 있는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國際的으로는 情報을 迅速히 대처하면서 國內的으로는 關係機關간에 緊密한 協調를 強化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際機構등에 駐在官을 常駐시키는 方案과 國際機構의 國內誘致 및 國際會談에 積極 參與하도록 해야 한다.

(2) 隣接國家間的 協力

中國의 工業化와 우리의 西海岸開發등은 黃海의 汚染과 酸性비등의 문제를 문제를 안게 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隣接國家間的 協력을 強化하는 한편, 특히 西海岸開發은 世界的인 生態系의 寶庫라고 일컫는 黃海汚染을 豫防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視角에서 各별한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環境科學技術의 開發과 政策發掘

低公害 내지 無公害技術의 導入과 開發은 成長과 保全을 調和시키는 捷徑이다. 따라서 環境科學技術을 開發하는 데에 投資를 擴充해야 하며 技術科學과 環境人文科學이

連繫될 수 있도록 研究機關을 補強해야 한다.

특히 90年代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은 環境政策開發을 위한 政府投資研究機關의 設立이 바람직스럽다. 民間分野의 環境投資를 부추길 수 있는 制度와 政策 예를들면, 環境行政機能配分の 調整, 稅制의 補完, 特別會計制度開發, 環境影響評價 基金造成方案의 開發 및 環境汚染防止費用負擔制度의 定型化등은 環境行政의 發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專門的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環境基準등의 再檢討

各種의 環境基準과 環境規制基準은 經濟·社會등 여건에 맞고 將來를 내다보면서 企業體등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量的 規制가 가능하도록 再檢討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하여 기준을 강화조정하고 오염경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90년대의 主要事業이 되어야 한다.

(5) 環境弘報·教育의 強化

政府와 企業 그리고 國民의 三位一體的 協력을 위하여서는 環境弘報을 科學化하여야 하며, 環境教育을 體系化해야 한다. 특히 학교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과 併行하여 敎師에 대한 環境教育方案을 制度化해야 한다.

5. 맺음말

90년대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결코 이것이 우리나라나 우리치의 施策方向으로 確定된 것은 아니라는 點을 明白히 하면서 다만 關心있는 분들에게 意見을 提示함으로써 環境行政發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